

김하성 '헬멧' 벗겨지면 팬들은 열광한다

김하성(28,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주루플레이를 하다가 매번 헬멧이 벗겨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 김하성이 주루플레이 중 헬멧이 벗겨져 떨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OSEN'에 따르면 김하성은 이날 현재 올 시즌 127경기 타율 2할7푼4리(435타수 119안타) 17홈런 49타점 74득점 29도루 OPS .804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중이다

샌디에이고는 지난 22일 김하성의 버블헤드 인형을 나눠주는 '김하성 데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김하성의 버블헤드는 김하성이 주루플레이를 하다가 자주 헬멧이 벗겨지는 것을 반영해 헬멧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김하성은 전력질주를 하다가 헬멧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 김하성은 그 이유에 대해 샌디에이고 유니온-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헬멧은 좌우로 넓은 편이다. 그런데 미국 헬멧은 앞뒤로 넓은 것 같다. 클럽 하우스에 있는 모든 헬멧과 물품창고에 있는 모든 헬멧을 써봤는데 하나도 맞지 않았다. 그런데 여전히 맞는 헬멧을 찾을 수가 없다. 완벽하게 맞는 헬멧을 찾기는 힘들다. 지금 쓰고 있는 헬멧이 내

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미국 매체 팬네이션은 지난 28일 "김하성이 도루를 할 때 헬멧이 날아가는 것은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 김하성은 단순히 핏코파크를 넘어 리그 전체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김하성의 활약을 기대했다.

'LIV 골프' 브룩스 켈카, 라이더컵 미국 대표 선발



▲ 브룩스 켈카가 티샷 스윙 후 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LIV 골프 소속의 브룩스 켈카가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에 출전한다.

지난 30일 '머니S'에 따르면 잭 존슨 미국 대표팀 단장은 전날 켈카를 비롯해 저스틴 토머스, 조던 스피스, 리키 파올러, 폴린 모리카와, 샘 번스를 단장 추천 선수로 선발했다.

라이더컵은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12명씩이 출전한다. 대회마다 부여하는 선발 포인트로 6명이 선정된다. 나머지 6명은 단장이 뽑는다. 이미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를 비롯해 윈덤 클라크, 브라이언 하먼, 패트릭 캔블레이, 맥스 호마, 잔더 쇼플리 등이 미국 대표팀으로 선발됐다.

켈카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로 이적했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선발 랭킹 7위에 자리했다. 미국팀은 7-10위를 추천 선수에서 제외한 전례가 없다. 하지만 켈카는 PGA 투어를 등재 선수들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때문에 선발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존슨 단장은 켈카에게 라이더컵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 존슨 단장은 "켈카는 실력이 뛰어나다. 켈카를 선발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었다." 고 말했다.

라이더컵은 9월 29일부터 이탈리아 로마 인근 마르코 시모네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역대 전적에선 미국이 27승 2무 14패로 앞서 있다.

재택 근무 논란에 코치 하차도 ... 어수선한 클린스만호

9월 유럽 원정 A매치를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마이클 김(한국명 김영민) 코치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차두리 대표팀 기술자분이 새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오른쪽)이 마이클 김 코치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지난 31일 'MBN'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8월부터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보직 관련 논의가 있었다." 며 "절차가 끝나면 대표팀 코칭스태프 개편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8년 8월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부터 대표팀에 몸담은 마이클 김 코치가 대표팀과 결

별하고, 그 자리를 차두리 기술자분이 채울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이 김 코치에게 돌연 스카우트 보직을 제안하자 지도자 경력을 이어가길 원하는 김 코치가 거절하고 대표팀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그 자리를 차두리 기술자분이 새로 맡는다는 것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4경기에서 2무 2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데다, 최근 외국에 주로 머무는 '재택근무' 논란을 일으켜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9월 4일 소집돼 영국으로 출국, 웨일스(9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9월 13일)와 두 차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3000
부터
(무료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